

지구촌리포트(도쿄지사)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제 목 :** 식품 폐기물을 줄이는 운동, '30·10'
- **주요내용**
 - 30·10운동의 의미와 취지



30・10운동을 알리기 위한 컵받침과 포스터
출처 : 마츠모토시 공식홈페이지

- 일본의 나가노현에 소재한 마츠모토시를 중심으로 「30・10」 운동이 조용히 퍼져 나가고 있다. 30・10이란, 기업이나 단체의 교류와 환담이 이루어지는 연회석상에서 건배 후 30분 동안은 자리를 이동하지 않은채 요리를 즐기고 연회가 끝나기 10분 전 자기 자리로 돌아와 음식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자라는 취지의 운동이다. 이 운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 좀처럼 효과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음식 폐기물

- 일본 농림수산성의 2013년 식품 폐기물의 이용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의 식품관련 폐기물 중, 먹을수 있지만 버려진 음식의 양은 무려 632톤에 달한다. 바쁜 생활로 인해 점점더 커져가는 외식산업과 커트야채와 같은 규격 식품이 늘어나면서 가공단계나 유통단계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가정에서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상미기간이 지난 식품들이 주된 원인이다.

○ 단체뿐만 아니라 가정판「30・10」도 고안, 어린이들의 인식정립에 힘쓰다.

- 한편 기업이나 단체뿐만 아니라 가정판 「30・10」도 고안되었다. 매월 30일은 식재를 다 사용하자는 「클린 업데이」로 지정하거나, 매월 10일은 식자재의 껍질 등을 이용한 레시피를 소개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또한 마츠모토시 에서는 시내 공립 보육원, 유치원을 방문하여 퀴즈나 놀이를 통하여 어린이들에게 음식의 소중함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는 어린이들의 식자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정립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행동개선은 물론, 그들의 부모들의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려는 목적이다.

○ 운동의 효과

- 2013년도 마츠모토시 환경정책과가 실행한 2011년도 부터 모델점포로 협력해 온 식당 주인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손님들이 음식을 남기는 일이 줄어들었고, 그로인해 음식물 쓰레기가 절반으로 줄었으며 쓰레기 처리비용과 수도요금 등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 2011년도부터 시작된 마츠모토시의 「30·10」 운동은 현재, 전국 각지로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동 시에는 각 지자체에서 시찰이 이어지고 있으며, 운동 명칭을 사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 시사점

- 전세계 인구 9명 가운데 1명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는 오늘 날, 매년 전 세계에서 16억톤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생산하는 음식물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러한 식품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올해 대형슈퍼에 의한 식품폐기가 규제되었고, 중국에서는 접시가 반짝거릴 정도로 깨끗히 먹자는 「광반(光盤)운동」이 제창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환경부에서 그간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 극적으로 감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은 대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부뿐만아니라 각 지자체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음식물폐기의 절감에 나섬으로 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